



풀빛 | 류현영 | 풀빛 편집부

생명과학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을 제시해 준 책

일반적으로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그러나 그 '정보'라는 것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문분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 일반 대중들이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과학분야가 아닐까 싶다. 어찌 보면 과학은 일반 대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성역화된 측면까지 있다.

《수상한 과학》의 저자 전방욱은 여기에 단지를 건다. 과학분야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저자는 생명과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명과학자와 대중, 그리고 타분야 학자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생명과학은 특히 윤리적 문제가 그 어느 과학분야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과학자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공학의 비판자이며 지지자인 대중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인문사회 과학 분야 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자가 이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생명과학의 상황이 지극히 '수상' 상태이기 때문이다. 생명공학 과학자들은 생명공학 기술이 가져다줄 무한한 이익을 보장하며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 그리고 생명공학 반대자들이 윤리적 문제만을 내세우며 비합리적으로 자신들을 비난한다고 주장한다. 대중들이나 시민·환경단체 등은 생명공학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았고, 위험성에 관한 충분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공학의 이익만을 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발전 논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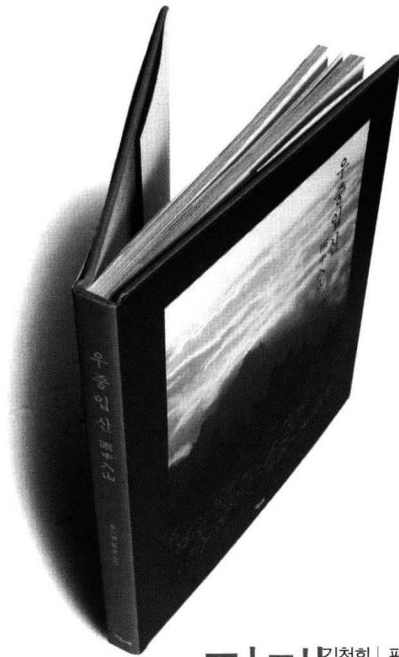
라고 비판한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생명공학은 놓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과학자들은 대중에게 과학의 내용이나 성과를 알릴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로 자신을 무장해야 하며, 대중들은 생명공학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를 기반으로 생명공학의 진정한 비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올해 초 황우석 교수가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했다는 기사로 생명과학계뿐만 아니라 온 나라 안이 떠들썩했었다. 언론에서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대중들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고, 이 사건에 대한 활발한 토론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상한 과학》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다. 생명과학 관련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 생명과학자, 대중, 인문사회학자의 역할과 자세를 짚어주고 있는 이 책은 '생명과학 전성시대'에 우리들이 꼭 한번쯤 읽어봐야 할 책이다. 생명과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말이다. **추천**



《수상한 과학》  
전방욱 지음 | 풀빛 | 270쪽 | 값 12,000원



당대 김천희 | 편집장

산사진, 달력사진이 아니더라!

2년 전, 겨울의 진객 두루미와 독수리를 보러 과주에 갔을 때 박웅 선생을 처음 만났다. 그날 밤 박웅 선생은 담백한 첫인상과는 달리 밤늦도록 열정적으로 자연과 사진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들려주었다. “산은 산이 좋아 오르면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 무한한 품으로 감싸준다. 그래서 나는 산을 좋아한다. 자만하지 않는 자라면 산은 언제나 그 사람을 반긴다”는 산에 대한 애정과, “산 사진은 빛으로 만든 예술이야!”라는 산 사진 예찬론에 푹 빠져버렸다. 사실 이때까지 산 사진 하면 그냥 눈맛 좋은 ‘달력사진’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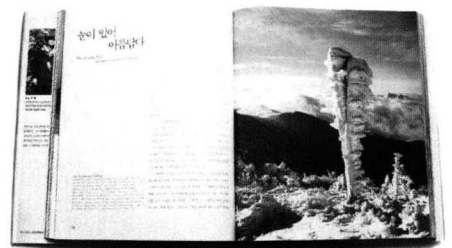
그래,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법. “선생님, 작품 한번 만들어 봅시다!”고 졸라 이 책을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나도 선생님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 후에 벌어질 숱한 고생을 짐작이라도 했을까. 수천 장이나 되는 필름을 검토하는 일에서부터 원고 정리, 2박3일에 걸쳐 진행된 인쇄, 제본 등 꼬박 밤을 새던 날도 많았다. 아무튼 편집자를 잘못 만나 저자가 무지하게 고생한 책이다.

10여 년을 산에 오르며 느낀 소회所懷를 담은 글과 함께 변화무쌍한 산의 모습을 담은 이 책은 지금까지의 산사진집과 달리, 볼거리는 물론 읽을거리도 제공한다. 한라산, 덕유산, 지리산, 설악산은 물론 이거니와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에 이르기까지 우리 산 곳곳을 찾아다니며, 운해·침봉·단풍·설경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았다. 또 촬영포인트와 카메라 렌즈, 셔터타임 등을 적은 사진설명을 곁들여 사진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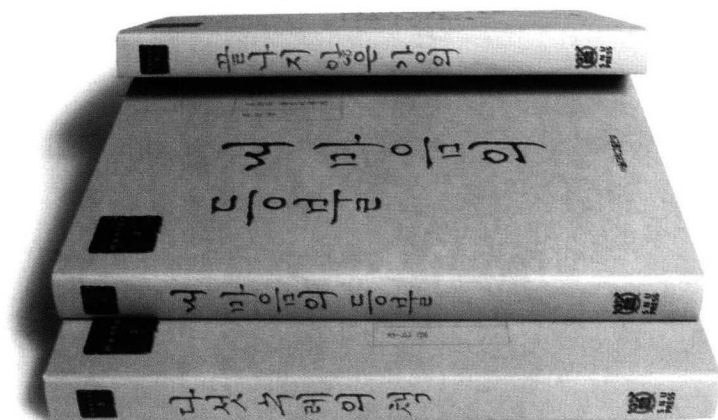
‘우리나라에도 이런 멋진 산이 있었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

로 나오는 장쾌한 산 사진은 말할 것도 없고, 비를 맞으며 산에 오르는 이야기며 가슴까지 차오르는 눈발을 헤치며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었던 기억, 새벽공기를 가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던 새벽 산행의 고단함 등 그간 저자가 겪으며 느꼈던 것들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풀어내고 있어 한번 손에 잡으면 놓기 어려운 매력으로 읽는 이를 끌어당긴다. 감정이입이 쉽게 이루어져서일까? 산행의 고단함과 가슴 벅찬 성취감, 끝내 실패했을 때의 허탈감 등 산에 올라 사진을 찍기까지의 신체적·정신적 회로애락이 그대로 전해져 내가 마치 산에 오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도 한다.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박웅의 《우중입산》이 나무냄새, 풀냄새, 바람냄새를 그리워하며 자연을 꿈꾸며 사는 도시인들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추천**



《우중입산》 박웅 지음 | 당대 | 210쪽 | 값 40,000원



# 서울대학교출판부 권영자 | 출판기획과장

앞서 오른 57인의 선배가 내미는 따뜻한 손길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 시작한다. 그래서 새 학기다, 새 학년이다. 새해 아침이다 하는 것은 사실 모두 '어제와 다른 오늘' 이란 뜻이다. 매일이 그렇게 다른 날이며 새 출발하는 날이지만, 때로 우리 인생에 정말 오늘은 그 어떤 어제와도 다른, 심지어 내일과도 다를 날이 오기도 한다. 우리가 태어난 날이 바로 그럴 것이다.

스무 살 무렵 우리는 그러한 날을 한 번 더 경험한다. 그 날이 꼭 스무 살 무렵에 오는 건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서른살 때 일 수도 있고 열 몇 살 때일 수도 있다. 바로 '청소년'으로서 보호받던 틀을 벗어나, 자유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만나게 되는 때이다. 한 개인으로서 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러한 날을 맞았을 때, 많은 어려움을 거치며 자기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간. 선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강의》《내 마음의 등불》《다섯 수레의 책》 등 세 권에 담겨 있다. 글을 쓰신 57분의 서울대 명예교수들은 모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의 식민지였던 시절에 태어나, 10대 초반에 해방을 맞고, 건국 초기의 혼란과 청소년기의 혼란을 동시에 겪으셨다. 그리고 잔혹한 전쟁과 함께 대학생생활을 시작했고,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으로 2년 사이에 세상이 두 번이나 뒤집히는 것을 목격하며 공부란 무엇인지, 학문이란 무엇인지, 누구와 무엇을 위해 대학이 있는 것인지 고뇌했던 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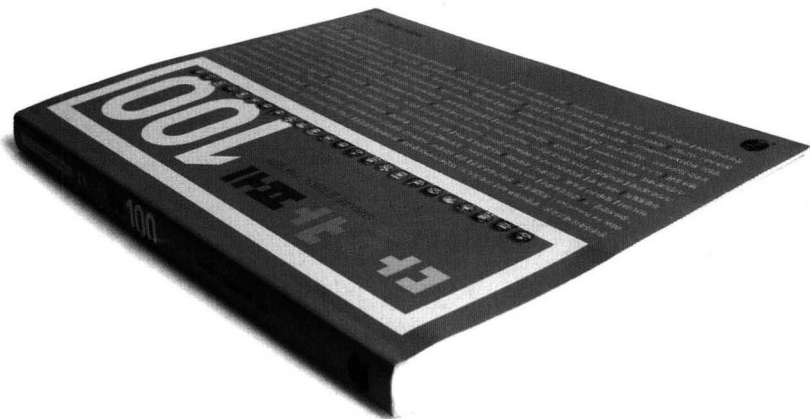
요즘은 진정한 스승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고 한다. 인터넷으로 공모하여 얻은 '멘토르Mentor' 라는 시리즈 제목은 이 기획의도와 딱 맞아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고 있었던 것이 길을 앞서간 이들의 창조적인 삶에 대한 지혜의 이정표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분 한 분의 진솔한 글에 스며 있는 '도전하는 자로

서의 힘과 성찰'이라는 공통된 자세에서 큰 기쁨을 얻는다. 또한 필자와 독자는 한 잔의 차를 나누며 반세기를 넘나드는 대화의 친구로 앉아 내일의 이야기를 속삭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창조의 새로운 원천을 발견한다.

《끝나지 않은 강의》에 실린 글 19편은 필자들이 스스로도 배우는 중이었던 20대 청년기의 이야기이다. 첫 강의를 준비하던 마음가짐, 처음 스승의 길에 들어서면서 깨달은 것, 대학의 의미는 무엇이며,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설계하고 공부는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준다. 《내 마음의 등불》에 실린 글은 필자들에게 성장의 나침반이 되어 방향을 일러 준 밤하늘의 별과 같았던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인물들의 가르침은 오늘날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 《다섯 수레의 책》에는 노학자들이 젊은 시절 깊은 감동을 받고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혀준 책과 독서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열두 살에 처음 접한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삼국사기》부터 《시경》까지의 고전 등에 폭 빠졌던 순간들이 눈빛 초롱한 유년의 향기처럼 풋풋하게 다가온다. **◆◆**

- 《끝나지 않은 강의》  
서울대학교출판부 편 | 316쪽 | 값 13,000원
- 《내 마음의 등불》  
서울대학교출판부 편 | 304쪽 | 값 13,000원
- 《다섯 수레의 책》  
서울대학교출판부 편 | 312쪽 | 값 13,000원





# ( 이채 홍연미 | 이채 편집장 )

## 편집부 속쓰리게 만들었던 애물단지

날것이던 아이디어나 원고가 마이크로판 산고産품을 거쳐 제대로 꼴을 갖춘 책으로 나오는 때가 그동안 원고를 보듬어 왔던 편집장 입장에서는 가장 초조해지는 순간이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유독 아픈 손가락은 따로 있다는 게 부모들의 공 공연한 비밀이듯, 내 손 거쳐 나온 책들 중에도 다신 들춰보고도 싶지 않은 책이 있는가 하면, 품도 공도 많이 들어가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 잠도 안 올 지경인 책도 있다. 그런데 유독 품들인 책이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을 때면 이걸 허탈하다 못해 속이 다 쓰리고 아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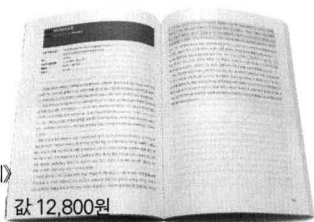
딱 이 녀석이 그랬다. 800여 통의 메일을 보내고 행여 오류라도 있을세라 혹여 재미없을세라 새벽 서너시까지 토끼눈이 된 날이 하루이틀이 아니었던만, 만들 때도 속 뒤집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니, 나오고 나서는 아예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녀석이다.

회의중에 우연찮게 불거져 나온, 이런 책이 있으면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바로 이튿날로 작가들 섭외하고, 선정기준 마련하고 난상토론큐에 나름의 기준에 들어맞는 100곳 골라 주인장이나 운영자와 연락하고... 근 일주일 정신없었지만 원고가 취합되고 난 다음에 건주면 그 상태는 위밍업 수준도 못 되었다. 부침이 심한 카페를 다루는 책의 성격상 하루가 아쉬웠던 데다, 수시로 달라지는 카페의 상황으로 마지막 교정지 순간까지 원고내용을 고치고 다시 메일이나 채팅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수없이 거쳐야 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그 전까지는 나잇살 먹어서 외계어로 채팅하는 이들을 은근히 멸시했었던만, 책이 나올 즈음에는 다른 저자에게 보내는 메일에도 이모티콘을 남발하

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아무리 인터넷 세대라도 정성은 알아본 답시고 100곳 카페에 굳이 한 글자라도 다른 메일을 보내겠다는 생각을 왜 했었는지는 이 책을 만들 때 그 과정이 재미있었던 나머지 콩깍지가 씩어서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책을 만드는 중에도 이 책이 시장에서 반응이 미적지근할 것이라는 조짐은 제아무리 콩깍지가 씩운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는데, 우선은 카페 회원수가 3만명이면 그 중 하나 둘은 완전 허수이고 나머지 중에도 열혈은 10분의 1정도라는 카페의 진실을 깨닫게 된 것이 그것이었다. 둘째는 우리나라 최대의 포털에 대한 카페 사람들의 호감도가 최소한 중립이리라는 예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라는 전지현의 멘트를 우리는 이 책을 만들며 일찍이 절감하고 있었다).

그래도 후시나 싶었던 기대는, 열광적인 카페들의 반응과는 달리 차가운 시장을 보며 여지없이 무너져내렸다. 판을 읽지 못한 수업료 치른 셈 치자고, 그래도 젊은층에 홍보효과는 괜찮지 않았냐고 애써 위안을 하긴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책만 생각하면 속이 쓰린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홍**



《다음카페 100-우리시대 문화코드 카페 읽기》  
프리랜서그룹 이채기획 역음 | 이채 | 250쪽 | 값 12,800원